

《甲骨文合集》의 曆法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

李 義 活*

<目 次>

I. 머리말
II. 考 釋

III. 맺는말

I. 머리말

甲骨文이 中國 殷墟에서 처음 발굴된 이래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10여 만 편이나 발견되었고, 또 이것에 관한 서적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甲骨文과 관련된 출판 서적 가운데 상당수가 약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서적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어떤 서적은 자체의 착오도 있으며, 어떤 서적은 출판 수량이 많지 않고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갑골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갑골문을 집대성한 서적의 출현을 고대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郭沫若이 중심이 되어 갑골문을 집대성한 서적을 편찬하기 위하여 1959년 편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61년 작업을 시작하여, 1982년 《甲骨文合集》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학자들이 고대하던 책이 출판되었지만, 甲骨文 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古文字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외의 다른 분야 학자와 고문자에 관심이 있어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국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에서도 이런 필요성으로 갑골문 考釋에 관한 연구물들이 약간씩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考釋 작업들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갑골문을 이용하려는 연구자나 중국 고문자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考釋에 관한 연구물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최근 가장 많이 갑골문을 수록한 《甲骨文合集》 가운데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卜辭를 골라 자세히 고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먼저 <《甲骨文合集》의 牧畜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牧畜과 관련이 있는 卜辭 45편과 <《甲骨文合集》의 祭祀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祭祀와 관련이 있는 卜辭 21편, <《甲骨文合集》의 官職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16편, <《甲骨文合集》의 疾病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23편, <《甲骨文合集》의 方國地理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26편, <《甲骨文合集》의 狩獵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15편을 골라 비교적 상세히 考釋하였다. 이번에는 曆法과 관련이 있는 卜辭 15편을 《甲骨文合集》에서 선택하여 考釋하고자 한다.

凡 例

1. 본 논문은 《甲骨文合集》에서 曆法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卜辭 15편을 골라 考釋하였다.
2. 선별 기준은 卜辭의 내용이 曆法과 관련이 있는 것만 선택하고, 내용이 너무 단순한 것은 배제하였다.
3. 考釋의 차례는 摹本·隸定·今注·今譯의 순으로 정하였다.
4. 摹本한 것 가운데 일부는 龜版 전체도 있고, 어떤 것은 일부도 있다. 이것은 혼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曆法과 관련이 있으며 摹本하였고, 만약 曆法과 관련이 없으면 摹本하지 않았다.

5. 今注는 먼저 이 편의 甲骨이 《甲骨文合集》의 몇 번째 版으로, 몇 번째 期에 속한다고 설명한 다음, 매 글자에 관하여 상세한 注를 달았다.
6. 일반적으로 龜版은 下部에(살아있는 거북으로 보면 땅을 향하고 있는 面) 갑골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正面이며 卜辭번호 뒤에 正으로 표기, 그 반대편 즉 짐을 치기 위하여 鑽·鑿·灼 등을 하는 부분을 反面(卜辭번호 뒤에 反으로 표기)이라 한다. 그리고 卜辭번호 뒤에 正이나 反의 표기가 없이 단지 번호만 기록된 것은 모두 正面이다.
7. 今注부분에서 어떤 글자를 설명할 때, 初文과 古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初文은 어떤 글자의 最初의 원시 字形으로, 전적으로 그 글자의 개념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古文은 어떤 글자의 옛 字形이지만, 그 글자의 개념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假借字이다.
8. 隸定할 수 있지만 현 字書(字典이나 辭典)에 보이지 않아 글자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 A | B | C |
|---|---|---|
|  |  |  |

II. 考 釋

1. 제1편

- 1) 隸定 : 「癸未王卜, 貞: 旬亡A ? 才正月。」
 -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37873 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5기로, 帝乙·帝辛시기 卜辭다.

- ② 癸未: 干支의 紀日로 癸未일이다. 商代는 天干과 地支를 配合하는 방법으로 날짜를 계산하였는데, 이것이 곧 干支 紀日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 天干과 12 地支를 서로 결합하는 것으로, 天干 甲과 地支 子가 서로 결합하여 甲子日이 되며, 60일 후 다시 甲子日이 되는 반복 순환의 날짜 계산법이다. 商代의 干支 紀日法은 中國의 歷代 王朝들이 계속 사용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天干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 ③ 王: 商王이다.
- ④ 卜: 龜版에 불을 가하여 나타난 균열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卜辭에서는 「占을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⑤ 貞: 이 글자는 원래 鼎의 모습을 본 따 만든 상형문자이다. 그러나 甲骨文에서는 대부분이 假借되어 「(점을 쳐서)묻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⑥ 旬: 甲骨文 旬은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려진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名詞로, 甲日부터 癸日까지 모두 10일을 표시한다. 商나라 사람들은 매번 一旬의 마지막 날인 癸日에 다음 一旬의 吉凶을 占으로 물었다.
- ⑦ 亡A: 亡자는 甲骨文에 보이는 형태로만 판단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며, 卜辭에서 주로 有無의 無로 사용된다. 陳夢家是 《殷墟卜辭綜述》에서 “亡과 又是 對文이 되는데, 亡은 無 혹은 沒有의 의미가 있는 동사로 사용된다. 卜辭에 사용된 부정사는 音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雙唇 塞音계열인 不과 弗이고, 다른 하나는 雙唇 鼻音계열인 勿과 毋이다. 이 4가지 단어의 의미와 語氣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점들이 있지만,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정확하게 나열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관계에서 약간의 구별을 할 수 있다. 勿과 毋에는 희망을 명령하는 의미가

있는데, 희망을 명령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不 弗의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¹⁾라고 하였다. 두 번째 글자(A)는 B와 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姚孝遂는 이 글자를 B자의 후기 형태로 보고, 재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²⁾. 亡A는 「재앙이 없다」는 의미이다.

- ⑧ 才: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才의 本義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卜辭에서 才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場所·時間·範圍·對象을 표시하는 介詞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介詞로 쓰였다. 이 介詞는 占卜의 月을 표시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武丁시기 卜辭는 대개 月을 표시할 때 사용하지 않고 있다.
- ⑨ 正月: 甲骨文에서 正자는 口 아래 止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正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邑을 나타내고 있으며, 止는 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邑을 향하여 가다」는 의미일 것이다. 卜辭에서 이 글자는 「征伐하다·正月의 正·充足의 足·祭名」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正月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 占卜이 거행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正月은 일년의 제일 첫 번째 달로, 一月이라고도 불렀다. 商나라 사람들은 달의 변화를 가지고 1개월로 삼았다. 그리고 1개월은 다시 큰 달과 작은 달로 나누어,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이다.
- 3) 今譯: 「癸未일에 王이 친히 점을 쳐서 <이 一旬(10일)동안 재앙이 없을 까요?>라고 묻다. 이 占卜은 1월에 거행되었다..」

2. 제2편

1) 隸定: 「癸丑卜, 貞: 今歲受禾? 弘吉. 才八月, 佳王八祀。」

1)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127-128 쪽

2) 于省吾, 《甲骨文字詁林》第三冊 2181-2183 쪽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37849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5기로, 帝乙·帝辛시기 卜辭다.
- ② 癸丑: 干支의 紀日로, 癸丑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표시하였다.
- ③ 今歲: 甲骨文 今자의 구조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현재라는 시간을 표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甲骨文 歲자는 戌(병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歲와 戌은 원래 같은 글자였을 것이다. 卜辭에서 이 글자는 曆法의 名詞 즉 「年」과 「祭名」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年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今歲는 今年이라는 의미이다.
- ④ 受禾: 甲骨文 受자는 두 개의 손(手)과 배(舟)로 구성되었다. 卜辭에서는 「획득하다·주다·地名」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획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甲骨文 禾는 곡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곡식의 총칭으로 사용된 것 같다. 受禾는 곡물의 풍성한 수확을 의미한다.
- ⑤ 弘吉: 이 편에서 引과 吉은 合文으로 처리되어 있다. 于省吾는 “甲骨文 弘은 활과 활 몸체부분의 1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획은 강하고 크다는 의미의 표시이므로, 이 글자는 六書의 指事로 분류할 수 있다.”³⁾고 하였다. 卜辭에서 弘은 「洪征의 의미·人名·地名」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洪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甲骨文 吉자의 結構와 本義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定說은 없다. 卜辭에서는 「순조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⑥ 才: 시간을 표시하는 介詞로, 甲骨文에서는 在로 사용된다.
- ⑦ 八月: 일년 가운데 8번째 달이다.
- ⑧ 佳王八祀: 甲骨文의 佳는 날개가 있는 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



3) 于省吾, 《甲骨文字釋林·釋弘》, 352-353쪽.

辭에서는 본의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假借되어 語詞를 표시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卜辭 말기에 從口의 唯자가 출현하였으며, 이때부터 唯자가 語詞를 표시하는 專用 글자가 되었다. 趙誠에 의하면 卜辭에서 佳자의 語詞용법은 「과동 표시·發語詞·原因 표시·假說 표시·시간 표시·강조 표시」 등으로 사용된다⁴⁾고 하였다. 이 곳에서는 강조의 어사 작용이 있는 것 같다. 祀는 갑골문의 형체만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 祀는 「祭名·一年·人名·地名」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일년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商代에는 祭祀를 매우 중시하여, 商王의 先祖에 대하여 매년 제사를 거행한 관계로, 祀는 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佳王八祀는 商王 8년이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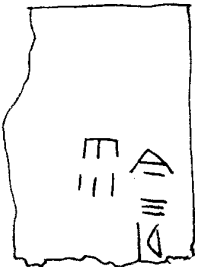
3) 今譯: 「癸丑일에 짐을 쳐서 <금년은 곡물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까요?>라고 묻다. 오래 동안 순조로울 것이다. 이 占卜은 商王 8년 8월에 거행되었다.」

3. 제3편

1) 隸定: 「今十三月雨?」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2647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② 十三月: 十과 三 그리고 月은 合文으로 되어 있다. 商나라 사람들은 윤달을 해의 마지막 부분에 두었기 때문에, 十三月이라고 하였다. 만약 윤달이 없으면, 마지막 달은 十二月이다.

③ 雨: 甲骨文 雨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

4) 趙誠, 《古文字研究·甲骨文虛詞探索》 第5輯 287 쪽

습을 나타내고 있다. 卜辭에서는 「비(名詞)·비가 내리다(降雨)·자연
신」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비가 내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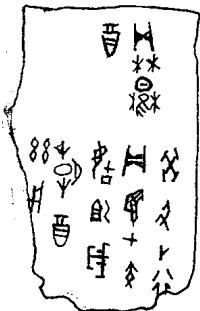
3) 今釋: 「<이번 13월에 비가 내릴까요?>」

4. 제4편

1) 隸定: (下) 「癸丑卜, 行貞: 羽甲寅毓且乙歲, 朝酉? 玆用」

(上) 「貞: 莫酉?」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3148 版이다. 傳統
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2기로, 祖庚·祖甲시
기 卜辭다.

② 癸丑: 干支의 紀日로, 癸丑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표시하였다.

③ 行: 甲骨文的 이 글자는 네거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어떤 것은 옆에 사람을 표시하는
人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 「길 혹은 가다」의
의미가 있다. 卜辭에서는 「가다·貞人의 名·

方國의 名」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貞人의 이름으로 쓰였다.

④ 羽: 이 글자는 새의 깃털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아마도 새를 표
시하기 위하여 만들려 졌을 것이다. 卜辭에서는 「祭命」과 「翬日의 翬」
·「人名」 등으로 쓰이는데, 이곳에서는 翬日의 翬으로 사용되었다.

⑤ 甲寅: 干支의 紀日로 甲寅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나타내었다.

⑥ 毓且乙: 且와 乙은 合文이다. 且는 祖의 初文이며, 毓은 后로 사용된
다. 毓且乙은 后祖乙로 곧 小乙이다. 商의 直系 先王으로, 祖丁의 아들
이며 小辛의 동생이다. 史書에서는 小乙이라고 불렀다.

⑦ 歲: 祭名이다(제2편 注③ 참조).

⑧ 朝: 이 글자는 수풀 가운데 日과 月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도 달은 아직 지지 않았고 해는 이미 출현한 시간, 즉 아침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다. 陳夢家是 “朝와 莫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朝는 日出 즉 해가 밝은 이후를, 莫은 해가 질 때를 표시한다.”⁵⁾라고 하였다.

⑨ 酉: 이 글자는 어떤 용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卜辭에서는 용기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 地干의 명칭과 祭名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祭名으로 사용되는데, 아마도 酒를 사용하여 거행하는 祭祀인 것 같다.

⑩ 茲用: 茲자는 두개의 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絲의 初文으로 보인다. 그러나 卜辭에서는 絲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指示代名詞와 地名으로만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指示代名詞로 쓰였다. 茲用은 이 占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⑪ 莫: 이 글자는 수목 가운데 일이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아마 해가 서산에 넘어 가려고 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것 같다(제4편 注⑧ 참조).

3) 今譯: (下) 「癸丑일에 점을 쳐서, 貞人인 行이 <내일 甲寅일에 后祖乙에게 歲祭를 거행하는데, 날이 밝은 후 酒祭로 거행할까요?>라고 묻다. 이 占卜은 채택되었다.」 (上) 「<黃昏에 酒祭로 거행할까요?>라고 묻다.」

5. 제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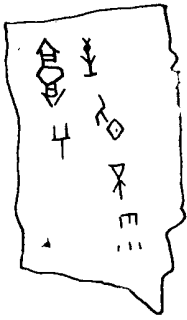
1) 隸定: 「郭兮至昏不雨?」

2) 今譯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9795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3기로, 廩辛·康丁시기 卜辭다.

② 郭兮: 甲骨文 郭은 성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本義는 성곽일 것이다. 卜辭에서 郭은 「성곽·人名·시간을 표시하는 명사」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명사로 쓰였다. 甲骨文 兮는 너

5)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230 쪽.



무 간단하여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神 혹은 조상의 이름·地名·시간을 표시하는 명사」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卜辭에서는 하루의 시간을 매우 세밀히 나누고, 각각 명칭을 부여하였다. 郭兮도 하루의 시간을 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陳夢家는 《殷墟卜辭綜述》에서 “卜辭

에서 오후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에는 昃·郭兮·昏 등이 있다. 中日을 正午 12시라고 본다면, 昏은 午後 6時 경이고, 昃과 郭兮는 오후 2시와 4時 경이다.”⁶⁾라고 하였다. 그리고 卜辭를 살펴보면 郭 혹은 兮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시간을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至: 甲骨文 至는 矢과 一로 구성되어 있는데, 一은 화살이 도달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것 같다. 卜辭에서는 「도달의 의미(장소)」·「도달의 의미(시간)」·「商王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거행할 때, 어떤 조상신으로부터 어떤 조상신까지의 의미」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도달의 의미(시간)」로 사용되었다.
- ④ 昏: 하루의 시간을 나눈 것 가운데 하나로, 郭兮 다음 시간이다(제5편 注② 참조).
- ⑤ 不: 이 글자 자형의 구조와 본의에 관하여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논란이 많다. 郭沫若 등의 학자들은 꽃의 씨방을 본 딴 것이라고 하고, 于省吾 등의 학자들은 식물의 뿌리를 본 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에서는 여기에 관한 것은 언급은 뒤로 미루겠다. 卜辭에서 不는 否定을 표시하는 否定詞와 人名·方國名 등으로 쓰여지는데, 이곳에서는 부정사로 사용되었다.

6) 같은 책, 231쪽.

⑥ 雨: 비가 내리다는 의미이다(제3편 注③참조).

3) 今譯: 「<郭兮부터 昏까지 비가 내리지 않겠지요?>」

6. 제6편

1) 隸定(아래에서 위로): 「中日其雨?」「王其省田 昃不雨?」「昃其雨?」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29910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3기로, 廩辛·康丁시기 卜辭다.

② 中日: 甲骨文 中은 가운데 깃발을 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本義는 깃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卜辭에서는 「깃발·人名(眞人的名)·방위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甲骨文 日은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卜辭에서는 「태양·태양신·시간 명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간 명사일 경우, 낮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일 즉 하루라는 의미도 있다. 中日은 하루 가운데 어떤 시간을 표시하는 名詞로 사용되고 있다. 陳夢家是 “中日은 午前과 午後의 경계선이다.”⁷⁾ 라고 하였으니, 正午 12시경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제5편 注② 참조).



③ 其: 甲骨文 其는 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卜辭에서는 대부분 假借되어 疑問의 語氣를 나타내는 副詞로 사용하고 있다.

④ 省: 甲骨文的 省은 生과 目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모두 순시나 시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⑤ 田: 甲骨文 田은 이랑이 있는 논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

7) 같은 책, 229쪽.

는 本義인 토지의 의미와 수렵 그리고 官職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토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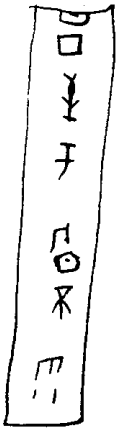
⑥ 𠄎: 甲骨文 𠄎은 태양과 옆으로 약간 기울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마도 태양의 빛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𠄎은 하루 가운데 어떤 시간을 표시하는 名詞로, 오후 2시경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제5편 注② 참조)

3) 今譯(아래에서 위로): 「<正午에 비가 내릴까요?>」 「<왕이 莊田을 시찰하려고 하는데, 𠄎시에 비가 내리지 않겠지요?>」 「<𠄎시에 비가 내릴까요?>」

7. 제7편

1) 隸定: 「𠄎至于昏不雨?」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9272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3기로, 廩辛·康丁시기 卜辭다.

② 𠄎: 甲骨文 𠄎은 태양이 막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니, 아마도 태양이 떠오르는 日出 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③ 于: 甲骨文的 于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 于是 병렬을 표시하는 連詞와 장소·시간·대상을 표시하는 介詞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介詞로 쓰였다.

3) 今譯: 「<새벽부터 黃昏까지 비가 내리지 않겠지요?>」

8. 제8편

1) 隸定: 「丙戌卜, 三日雨? 丁亥佳大食雨?」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20961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 ② 丙戌: 干支의 紀日로 구체적인 날짜를 나타내는데, 丙戌일이다.
- ③ 三日: 제3일째의 날이다
- ④ 丁亥: 干支의 紀日로 구체적인 날짜를 나타내는데, 丁亥일이다. 이 丁亥일은 점을 친 丙戌일의 다음 날이다.

⑤ 大食: 陳夢家是 《殷墟卜辭綜述》에서 “大食과 小食은 아침과 저녁을 먹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古代의 식사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는 집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었으며, 점심은 일터인 밭에서 먹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침과 저녁 2끼만 먹었다.”⁸⁾라고 하였다. 아마도 大食은 아침을 먹는 시간 즉 오전 8시 전후로 보면 될 것이다.

3) 今譯: 「丙戌일에 점을 쳐서 <제3일째가 되는 날 비로소 비가 내릴까요? 아니면 2째 날인 丁亥일 大食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까요?>」

9. 제9편

1) 隸定: 「乙亥卜, 爭貞: 今春王往田, 若?」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649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 ② 乙亥: 干支의 紀日로 구체적인 날짜를 나타내는데, 乙亥일이다.

8) 같은 책, 231쪽.

나타내는데, 乙亥일이다.

- ③ 爭: 이 글자는 卜辭 제1기에 자주 등장하는 貞人の 이름이다. 이 글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劉鶚은 戔로, 葉玉森은 殺로, 唐蘭은 牽으로, 于省吾는 처음에 叕로 해독하다가 뒤에 爭으로 바꾸었다. 屈萬里는 于省吾의 처음 해독한 叕자를 따랐다. 胡光燾가 金文과의 비교를 통하여 爭으로 隸定하고 의미는 征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자, 張秉權·姚孝遂 등의 학자들이 이를 따랐다⁹⁾. 이곳에서도 爭으로 해독하겠다.
- ④ 春: 甲骨文 春은 草·日·屯으로 구성되어, 《說文解字》의 篆書와 거의 동일하다. 卜辭에 春과 秋만 나타나고, 夏와 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商代에는 1년을 春과 秋 2계절로 나누었을 것이다. 또 卜辭에는 今春과 來春이 對稱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금년 봄과 내년 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 ⑤ 王: 商王인 武丁을 의미한다.
- ⑥ 往: 甲骨文 往은 止와 王으로 이루어져, 本義는 往來의 往이다. 卜辭에서는 祭名과 往來의 往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곳에서는 往來의 往으로 사용되었다. 이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 ⑥ 田: 이곳에서는 수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제6편 注⑤ 참조).
- ⑦ 若: 甲骨文의 若은 사람(여자)이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순조롭다·만약」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순조롭다」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 3) 今譯: 「乙亥일에 점을 쳐서, 貞人인 爭이 <금년 봄 왕이 수렵을 가면, 순조로울까요?>라고 묻다.」

9)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第2冊 999-1001 쪽

10. 제10편

1) 隸定: 「貞: 今秋禾不耨大水?」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33351 版이다. 傳統의 五期 分法에 의하면 제4기로, 武乙·文丁시기 卜辭다.

③ 秋: 甲骨文 秋는 귀뚜라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卜辭에서는 모두 계절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마도 假借義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今秋는 금년 가을이다(제9편 注④ 참조).

④ 禾: 甲骨文 禾는 곡식이 익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本義는 곡식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卜辭에서도 농작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⑤ 耨: 甲骨文 耨는 두개의 물건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두개의 물건이 서로 만나다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다. 卜辭에서는 本義와 本義에서 파생된 「만나다·당하다·(神과)교접하다」 등과 假借義인 人名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遭遇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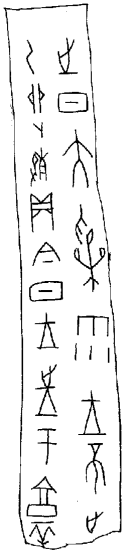
⑥ 大水: 甲骨文 大는 사람이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는 「人名·大小의 大·到達의 到」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大小의 大 의미로 쓰였다. 大水는 「큰물에 침수가 되다」는 의미이다.

3) 今譯: 「<금년 가을, 농작물이 큰물에 침수되지 않겠지요?>라고 묻다..」

11. 제11편

1) 隸定: 「乙卯卜, 穀貞: 今日王往于敦? 之日大采 雨 王不徂于敦。」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2814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 ② 乙卯: 干支의 紀日로 乙卯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나타내었다.
- ③ 夬: 甲骨文에서 이 글자는 악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는 假借되어 貞人의 名과 人名으로 쓰여지는데, 이곳에서는 貞人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④ 今日: 점일 친 그 날을 의미한다.
- ⑤ 敦: 甲骨文 敦은 집 아래 羊이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地名과 「추격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地名으로 쓰였다.

⑥ 之日: 甲骨文的 之는 止와 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止는 사람의 발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미하고 一은 땅으로 본다면,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卜辭에서는 指示代名詞로 쓰이고 있는데, 茲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즉 茲는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之는 茲보다 먼 곳을 가리키는 것 같다. 之日은 「그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

- ⑦ 大采: 甲骨文 采는 손으로 나무의 열매를 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는 大采·小采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모두 하루의 어떤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陳夢家是 “《國語·魯語》에 ‘是故天子大采朝日, ……日中考政, ……少采夕月, …….’라는 문장이 있는데, 董作賓은 《殷曆譜》에서 ‘大采는 아침이고, 小(少)采는 저녁이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다. 大采·小采가 출현하는 卜辭는 모두 武丁시기에 속한다. <京都>一片을 보면, 小采가 昃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日과 采가 對貞을 이루기 때문에,

小采가 대략 夕의 시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大采는 아침(朝), 小采는 저녁(夕)으로 정하는데, 대략 大采는 아침 8시경이고, 小采는 오후 6시경이다.”¹⁰⁾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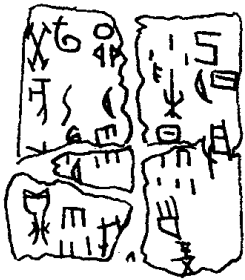
⑧ 往: 이 글자는 일부 떨어져 정확하게 어떤 글자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步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문장하고 관련지어 본다면 往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 今譯: 「乙卯일에 짐을 쳐서, 貞人인 覈이 <오늘 왕이 敦지역으로 가도 될까요?>라고 묻다. 이 날 大采 경에 비가 내려, 왕이 (敦 지역에) 갈 수 없었다.」

12. 제12편

1) 隸定: 「癸亥卜, 貞: 旬乙丑夕雨? 丁卯夕雨? 戊小采日雨鳳? 己明啓?」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21016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② 癸亥: 干支의 紀日로 癸亥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나타내었다.

③ 乙丑: 乙丑일이다. 짐을 친 癸亥일 다음날이 乙丑일이다.

④ 夕: 甲骨文에서 夕의 자형은 두개가 존재한다. 아마도 달(月)을 표시하는 반달의 형태가 먼저 존재하였으며, 이후 밤(夕)을 표시하기 위하여 반달에 한 획을 첨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관계로 초기 갑골문(제1기로부터 제4기까지)에는 月은 반달로, 夕은 반달에 한 획이 첨가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5기에 오면 이것이 바뀌어 月이 반달에 한 획이 첨가

10)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232 쪽

되고, 夕은 반달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모두 이같이 기록하여,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 夕은 卜辭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는데, 日과 夕은 반대 개념으로, 日은 태양이 있는 낮이고 夕은 태양이 없는 밤을 의미한다.

- ⑤ 乙卯: 乙卯일이다. 짐을 친 癸亥일로부터 재일째 되는 날이 乙卯일이다.
- ⑥ 戊: 天干의 名稱이다. 丁卯일 후의 戊辰일을 의미한다
- ⑦ 小采日: 하루 가운데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명사로, 晷時의 뒤에 오는 夕의 시간대이다(제11편 注⑦ 참조).
- ⑧ 鳳: 甲骨文 鳳은 어떤 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象形字이다. 후에 聲符인 凡이 첨가되어 形聲字가 되었으며, 다시 鳥와 凡聲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鳳자가 만들려졌다. 卜辭에서 鳳은 本義인 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단지 1번만 출현하고, 대부분 假借되어 「바람(명사)·바람이 불다(동사)·바람의 신」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 ⑨ 己: 天干의 名稱이다. 戊辰일 다음에 오는 己巳일이다
- ⑩ 明: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甲骨文의 이 글자를 모두 明暗의 明으로 考釋하였다. 그러나 明暗의 明자는 甲骨文부터 西周의 金文까지 모두 從囧 從月로 이루어져 從日 從月로 된 明자는 하나도 없다. 또한 《說文解字》에서도 “정확한 篆書는 從囧 從日이고, 從日 從月은 或體로 戰國시기에 보이는 形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于省吾는 《甲骨文字詁林》에서 “이 글자의 形體演變과 辭例 등을 종합 고찰한 결과, 이 글자는 朝의 省體로 보아야 한다.”¹¹⁾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于省吾를 의 學說을 따라 朝로 해독하겠다(제4편 注⑧ 참조).
- ⑪ 啓: 甲骨文 啓는 手와 戶로 구성되어, 손으로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本義는 「문을 열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卜辭에서

11) 于省吾, 《甲骨文字詁林》第二冊 1348 쪽

는 모두 本義에서 引伸된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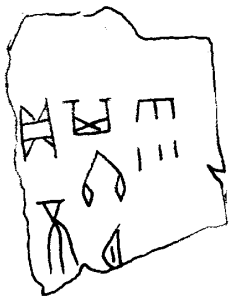
3) 今譯: 「癸亥일에 점을 쳐서 <이 一旬(10일)동안의 乙丑일 저녁에 비가 내릴까요? 丁卯일 저녁에 비가 내릴까요? 戊辰일 小采정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까요? 己巳일 아침이 되면 날이 맑게 개일까요?>라고 묻다.」

13. 제13편

1) 隸定: 「貞: 不其冬夕雨?」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2998 正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의 卜辭다.



② 冬: 趙誠은 《甲骨文簡明詞典》에서 “甲骨文 冬에서 선은 실을 나타내고 동그라미는 실을 감는 실패를 표시하고 있으니, 이 글자는 終極의 의미를 표시하고 있으며, 終의 初文으로 보아야 한다. 甲骨文에서는 동사로 사용되어 終絶의 의미가 있다.”¹²⁾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도 이를 따라 해독하면, 冬夕은 終夕이고, 終夕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 전체」를 표시하고 있다.

3) 今譯: 「<밤이 새도록 비가 오지 않겠지요?>라고 묻다.」

14. 제14편

1) 隸定: 「……戊卜, 出貞: 自今十年C五王……?」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4610 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12) 趙誠, 《甲骨文簡明詞典》, 325쪽.



2기로, 祖庚·祖甲시기의 卜辭다.

- ② ……戊: 戊은 地干의 名稱이다. 干支의 紀日 가운데 天干 부분이 떨어져나갔다. 의미는 ……戊일이다.
- ③ 出: 이 글자의 甲骨文은 발과 웅덩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고대사람이 穴厫 집에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出자는 卜辭에서 「出入의 出」·「出現의 出」·「真人의 이름」 등에 쓰여지는데, 이곳에서는 真人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④ 自今: 甲骨文에서 自자는 코(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 自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本義인 코(鼻)로 사용되고, 둘째 인신되어 自己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셋째 自己라는 의미에서 다시 引伸되어 介詞인 「由(……로부터)」·「從(……을 따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介詞로 사용되

기 때문에, 自今은 지금부터라는 의미이다.

- ⑤ 十年C五: 甲骨文 年은 사람이 머리에 곡식의 짚단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정경을 묘사하였을 것이다. 卜辭에서는 引伸되어 「풍성한 수확」의 의미가 산출되었으며 그리고 古代에는 1년에 한번의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의 수확」이 곧 1년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年은 引伸되어 해를 헤아리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C자는 字書에 보이지 않는다. 于省吾는 《甲骨文 字詁林》에서 “卜辭에서 이 글자는 再又의 又와 有無의 有 福祐의 祐 그리고 祭名인 侑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근원에 관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누구의 학설이 옳은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¹³⁾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有無의 有로 사용되었다. 十年C五是 15년이다

13) 于省吾, 《甲骨文 字詁林》 第4冊 3432 쪽

3) 今譯: 「……戌일에 짐을 쳐서, 貞人인 出이 <현재의 15년부터 시작하여 왕 ……?>라고 묻다。」

15. 제1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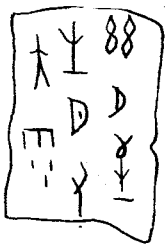
1) 隸定: 「茲月至生月又大雨?」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9995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3기로, 廩辛·康丁시기의 卜辭다.

② 茲月: 甲骨文 茲는 卜辭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指稱하는 指示代名詞로 사용되고 있다(제4편 注⑩ 참조). 茲月은 「이 달」이라는 의미이다.

③ 生月: 甲骨文 生은 초목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本義는 성장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卜辭에서는 「성장」이라는 의미 외에도, 引伸되어 死의 반대 개념인 「活的」의 의미와 假借되어 指示代名詞로도 사용되고 있다. 陳夢家是 “卜辭에서는 占卜을 거행한 그 달을 今月 혹은 茲月이라고 하고, 그 다음달은 生月이라고 하였다”¹⁴⁾라고 하였으니,



이곳에서도 이를 따른다.

④ 又: 甲骨文 又자는 오른손을 본 따서 만든 글자이다. 卜辭에서는 「有無의 有·福祐의 祐(신의 복을 받다)·侑祭의 侑(제명)·左右의 右·再又의 又(또)」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有無의 有로 사용되었다.

3) 今譯: 「<이 달과 다음 달에 큰비가 내릴까요?>」

14)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117-118 쪽

Ⅲ. 맺는말

본 논문은 《甲骨文合集》에서 曆法과 관련이 있는 主要 卜辭 15편만 골라 考釋하였지만, 甲骨 卜辭 전체에서 曆法과 관련이 卜辭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曆法과 관련이 있는 卜辭들을 살펴보면,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날짜 계산법이다. 商代는 天干과 地支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날짜를 계산하였는데, 이것이 곧 干支 紀日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天干과 12地支를 서로 결합하는 것으로, 天干 甲과 地支 子가 서로 결합하여 甲子日이 되며, 60일 후 다시 甲子日이 되는 반복 순환의 날짜 계산법이다. 商代의 干支 紀日法은 중국의 歷代 王朝들이 계속 사용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商代에 月을 헤아리는 방법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一月·二月·三月…… 등으로 기록하였으며, 太陰太陽曆을 채택하여 一年을 12個月로 나누었다. 몇 년만에 한번씩 閏月을 만들어 12월 뒤에 두고 十三月이라고 하였다. 每月의 날짜 數는 큰 달과 작은 달이 있는데 큰 달은 30일이고 작은 달은 29일이다. 一月에만 사용되는 「正月」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날짜를 계산하는 용어로 10일을 나타내는 旬이라는 辭가 卜辭에 매우 많이 출현하고 있다.

商나라 사람들은 하루를 시간에 따라 매우 정밀하게 구분하였는데, 旦·大食·中日·昃·郭兮·昏·大采·小采·小食·暮·朝 등의 용어가 있다. 그리고 1年은 단지 春과 秋 2계절로만 나누고, 夏와 冬이라는 계절은 구분하지 않았다. 今年은 今歲, 來年은 來歲, 여러 해는 … 祀라고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년을 표시하는 데는 歲를 많이 사용하고, 年은 주로 곡물의 수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參考文獻〉

- 郭沫若等, 《甲骨文合集》(中華書局), 1982.
郭沫若, 《甲骨文字研究》(香港: 中華書局), 1955.
郭沫若, 《卜辭通纂》(科學出版社), 1983.
唐蘭, 《殷虛文字記》(中華書局), 1981.
徐中舒主編,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 1990.
王貴民等編, 《甲骨探史錄》(三聯書店), 1982.
王宇信, 《建國以來甲骨文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王宇信主編, 《甲骨文與殷商史》 第三輯(上海古籍出版社), 1991.
于省吾, 《甲骨文字釋林》(中華書局), 1979.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中華書局), 1996.
李孝定, 《甲骨文字集釋》(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65.
張秉權, 《殷墟文字丙編考釋》(臺北: 中央研究院 歷史研究所), 1972.
丁福保, 《說文解字?林》(臺北: 鼎文書局), 1983.
丁山,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中華書局), 1988.
趙誠, 《甲骨文簡明詞典》(中華書局), 1988.
陳夢家, 《殷墟卜辭綜述》(中華書局), 1990.
許進雄, 《中國古代社會》(臺北: 商務印書館), 1988.
胡厚宣主編, 《甲骨文與殷商史》 第一輯(上海古籍出版社), 1983.
胡厚宣主編, 《甲骨文與殷商史》 第二輯(上海古籍出版社), 1986.
姚孝遂, 〈再論古漢字的性質〉, 《古文字研究》第17輯, 1989.
趙誠, 〈甲骨文虛詞探索〉, 《古文字研究》第15輯, 1986.

〈中文提要〉

從卜辭反映的情況看, 商代紀日採用天干地支相配的方法, 依其相配順序

紀日，即所謂干支紀日法。具體來說即十天干與十二地支相配，如天干「甲」與地支「子」相配為「甲子」日，以此類推，至六十日後又有一甲子日，反復循環。此後干支紀日法便中國歷史上沿用了下來，直到採用公元紀年為止。

商代紀月則用數字，按順序依次紀錄，如「一月」·「二月」等，採用陰陽合曆，分一年為十二個月，若干年置一閏月，放在「十二月」之後，稱為十三月。每月含之日有大小之分，大月為三十日，小月為二十九日，其一月又有專名，稱為正月，此名一直沿用至今。此外，還採用「旬」的紀日法，以十日為一旬，從現今所見卜辭看，商人對「旬」使用頻率相當高，甲骨文中大量卜旬之辭充分說明了這一點。

商人對一日之中各時段有很精細的劃分，他們將一日分為「旦」·「大食」·「中日」·「昃」·「郭兮」·「昏」，還有「大采」·「小采」·「小食」·「暮」·「朝」等。又將一年分為「春」·「秋」，無「夏」與「冬」，積年則稱為「祀」，當年則稱為「今歲」，來年則稱為「來歲」等，偶或稱「年」。而「年」主要表示穀物的收穫，一般不用來紀時。

주제어 : 干支紀日法, 年, 歲, 祀, 正月, 旬, 春, 秋, 旦, 中日, 昏

